

變貌하는 世界石油市場

— 7大메이저를 中心으로 —

78년말 이란事態로 야기된 第2次 石油危機 이후 변화하기 시작한 世界石油市場의 石油供給構造가 80년 이후 계속되는 석유 수요감퇴와 이에 따른 過剩生産施設로 인해 다시 變動을 겪고 있다. 79년말과 80년초에 시작되거나 가속화되던 일부 變動事態는 다시 逆轉되고 있다. 즉 原油市場의 物量이 늘어나자 長期供給契約은 安定供給이라는 機能을 대부분 상실하였으며, 현재로는 利益보다는 危險을 내포하고 있다. 선망의 대상이던 아랍코價格은 싸다는 惠沢은 사라지고 도리어 損失을 안겨주고 있다. 종전과는 달리 G-G去來도 石油輸入國의 매력을 잃고 있다. 이러한 現狀은 과연 79년 이전의 石油供給構造로 돌아가고 있는 ango인가?

최근의 事態에 對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1,2次 石油危機 이후의 期間을 考察하고 아울러 上流部間(Upstream)의 급격한 變動 및 下流部間(Downstream)의 적응과 兩部間사이의 動的인 上互作用을 考察해 볼 必要가 있다. 이러한 變動은 7大 메이저들의 上流部間과 下流部間의 現況을 比較해 봄으로써 確실히 進다.

I. 産油國과 石油會社의 關係

70년대 초 이후 産油國에서 先進工業國으로 公급되는 原油의 流通構造가 變動되기 시작했다. 과거 10여년간에 걸친 産油國과 石油會社의 關係는 세 단계로 說明할 수 있다.

73년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던 原油는 하루 3,000만 배럴이었으며, 이는 全世界 原油去來量의 약 75%에 해당된다. 또한 이 原油의 大部分은 開發 및 特惠 原油였다. 메이저 自身의 原油處理量은 日 約

2,300만 배럴이었으므로 메이저들은 실제 必要한 量보다 훨씬 많은 原油를 確保하였다. 이 剩餘原油는 주로 장기계약에 따라 第3 者에게 販賣되었다.

그후 産油國內 석유회사가 國有化됨에 따라 메이저들의 原油生産 配分權은 점차 産油國 政府 또는 産油國의 國營석유 회사로 넘어갔다. 이러한 事態는 두가지 點에서 메이저들에게 影響을 주었다: 메이저들이 직접 確保하는 原油의 量이 減少하였으며, 그들이 前에 購入

〈表-1〉 7大메이저의 原油確保內訳 單位: 億 배럴/日

	1973	1978	1980	1981
원 유 확보 량	30.0	23.3	19.6	18.3
지 역 별				
OECD 이 외 지역	25.0	17.1	13.3	11.4
OECD 국 가	5.0	6.2	6.3	6.9
확 보 형 태				
개발 원 유	25.5	13.4	9.7	8.9
아랍코 특혜 원 유	—	3.6	7.5	6.6
이란 콘소 디 움	—	4.1	—	—
소 계	25.5	21.1	17.2	15.5
기 타 구 배	4.5	2.2	2.4	2.7
원 유 처 분 량	30.0	23.3	19.6	18.3
제 3 자 판 매	6.7	3.7	0.8	1.0
지 사 정 제	23.3	19.5	17.9	15.9
기 타	—	0.1	0.9	1.4
제 품 판 매	24.3	22.4	20.4	19.1
자 사 정 제	22.9	19.1	17.6	15.6
순 구 매 량	1.4	3.3	2.8	3.5

하던 상당량의 原油가 그들의 일부 고객을 포함한 다른 石油会社에게 轉用되었다. 그리고 메이저들이 購入할 수 있는 대부분의 原油價格이 投資会社로서 同一한 原油를 구입할 때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에 上流部間마진이 줄어들었다.

메이저들의 開發原油購入量은 73년 하루 약 2,550만 배럴(總確保량의 약 85%)에서 78년 약 1,340만 배럴(약 57%)로 떨어진 반면 그들의 總原油確保량은 <表-1>에서 보는바와 같이 하루 약 700만 배럴 밖에 줄지 않았다. 이와 같은 開發原油의 감축과정은 產油국이 石油産業을 国有化할 때 前租權者인 메이저들에게 特惠地位를 부여해 줌으로써 더욱 촉진되었으며, 原油確保량과 上流部門마진이 감소함에 따라 第3者에 대한 메이저의 原油販賣量은 78년 하루 370만 배럴로 줄었다.

이러한 供給構造의 순조로운 變化와는 대조적으로 이란 革命과 그후에 일어난 原油不足事態는 세계 원유시장의 급격한 變化를 재촉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原油市場의 구조적 變化로 인하여 原油價格은 급등하였다. 79년 초 이란 原油의 供給中斷에 직면한 메이저들은 “不可抗力”조항을 적용하거나 단계적 供給中止 조항을 이용하여 第3者에 대한 原油供給을 中斷하거나 삭감하였다. 메이저들로부터 原油供給을 中斷 또는 삭감당한 会社들은 새로운 供給先을 찾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世界石油市場에서

原油購入競爭이 치열해졌다.

새로 直去來를 시작한 일부 会社들은 原油市場이 이렇게 運用되는지 잘 알지 못했다. 따라서 產油國들은 購者들의 불안과 혼란으로 야기된 人爲의 인 경쟁을 이용하여 價格을 인상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長期契約物量을 現物市場에 유출시켰다.

메이저들도 새로운 供給源을 찾아 나섰으며, 79년 한동안 소칼과 텍사코를 제외한 메이저들은 開發原油 및 長期契約分을 가지고는 自社정유공장수요도 채울 수 없었다. 메이저들은 할 수 없이 國內購買 또는 現物購買로 不足分을 보충하여야 했다. 80년 초에 접어들어 비로서 메이저들의 原油確保량과 자사정제소요량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表-2>에서 보듯이, 메이저 全體로 볼 때 石油製品販賣量이 原油確保량

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II. 世界石油市場의 動向

최근 1년반동안의 石油業界 動態는 原油의 過剩生産 및 現物市場價格과 公式販賣價格에 대한 계속적인 引下壓力을 배경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메이저들의 原油供給은 全般의 産業의 推移에 따라 80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며, 80년 이전에 이미 他石油会社들에 비해 막대한 供給量을 產油國에서 상실하였다. <表-1>에서 보듯이 80년 OECD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確保한 原油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81년 메이저들의 總原油確保량은 前年對比 하루 130만 배럴이 감소했으며, 이는 OECD국의 同年需要減少 6.3%에 해당하는 量이다. 메이저의 原油供給이 비교적 安定을 보이게 된 가장 큰 理由는 근본적으로 國際石油供給體系

<表-2> 7대메이저의 原油 및 製品需給実績 (단위: 백만배럴/일)

	1973	1978	1980	1981
7 大 메 이 저				
1 원유 공급량	30.0	23.10	19.63	18.29
2 원유 처리량	23.3	19.53	17.92	15.94
1-2 과 부 족	6.7	3.65	1.71	2.35
3 제품 판매량	24.3	22.42	20.45	19.07
1-3 총 과 부 족	5.7	0.76	0.82	-0.78
아랍 코 계 메이저				
1 원유 공급량	16.3	13.16	13.30	11.60
2 원유 처리량	13.5	11.52	10.84	9.85
1-2 과 부 족	2.8	1.68	1.46	1.75
1-3 초 과 부 족	1.8	-0.30	-0.11	-0.03
3 제품 판매량	14.5	13.46	12.41	11.57
유럽 계 메이저				
1 원유 공급량	10.7	8.43	6.11	-5.65
2 원유 처리량	7.8	6.24	5.69	4.96
1-2 과 부 족	2.9	2.19	0.42	0.69
3 제품 판매량	8.0	7.28	6.69	6.31
1-3 총 과 부 족	2.7	1.15	0.58	-0.66

에서의 메이저들의 역할이 자신의 정제업과 판매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物量은 크게 감소했으나 아직도 일부 第3者에 처한 原油 販売는 계속되고 있다. 81년에는 아랍코係메이저들의 確保物量은 늘었으나, 自社精油工場에서 全量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第3者 販売量이 前年對比 하루 20만배럴이 늘어 하루 130만배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메이저들의 精製剩餘分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두가지 理由로 短期契約下에 거래되고 있다. 첫째는 메이저자들이 長期契約에 구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둘째는 購買者들이 不可抗力 또는 단계적 공급중단 조항이 들어 있는 長期契約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81년에는 또한 OECD國으로부터의 安全한 供給量이 늘어남에 따라 메이저들이 確保하고 있는 供給先의 構成樣相이 더욱 向上되었다. 7大메이저 全体로 볼 때 OECD原油의 構成比는 80년 32%, 78년 27%에서 81년에는 37%로 上昇하였다. 이는 原油供給源으로써 OPEC의 비중이 감소하고 또한 이란·쿠웨이트·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일부 產油國에서 메이저의 地位가 지나치게 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原油價格下落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石油開發事業은 다소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石油探查 및 開發事業이 일

반적으로 西歐 특히 美國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메이저들의 供給源이 安全한 지역으로 多邊化되고 있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들은 現在 신국사업을 줄이든가 또는 기존사업에서 철수함으로써 長期契約購買者로서 뿐만 아니라 株主로서 非 OECD國에서의 역할을 축소시켜 나가고 있다. 최근 엑슨과 모빌이 리비아에서 철수한 것이 한 例이다. 두 会社 모두 그들의 철수가 經濟的인 理由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의 철수는 美國과 리비아 사이의 政治的 關係惡化에 기인된 것이다.

81년 메이저確保原油중 OECD國의 比重이 늘어남에 따라 73년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들의 開發原油減少推勢가 중단되었다. 物量面으로 보면 하루 80만배럴이 줄어 하루 890만배럴로 떨어졌지만, 總原油確保量중 開發原油의 比重은 80년에 이어 49%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73년의 85%에 비하면 아직도 큰 차이가 있다.

몇몇 OPEC 產油國과의 長期契約은 79년과 80년 같은 試練期에 安定性이 없었기 때문에 不信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經濟的인 理由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現物原油가 장기계약원유보다 값이 싼 市場 條件下에서 精油業者들은 原油 確保에 유연성있게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물론 長期契約이 모두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장기 전략적인 관점이나 兵站的인 면에서 본다

면 產油國과 長期契約에 의한 基本物量은 항상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供給過剩時에는 장기계약물량은 감소하고, 단기계약 및 現物購買量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現物去來原油는 79년초 世界原油去來量의 1~2%에서 82년 1/4분기에는 6%이상으로 急增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아랍코市場은 아주 例外的이다. 사우디의 公式販売價格이 現物價格과 기타 OPEC의 原油價格보다 높기 때문에 사우디와 長期契約을 맺는 것은 비록 그것이 장기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現在로서는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原油市場이 약세를 보이자 全世界의으로 부러움을 받던 아랍코原油의 利點은 적어도 당분간 사라지고 不利益을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82년 1/4분기 아랍코係메이저들은 前年同期對比 22%~64%의 純益減少를 기록하였다.

Ⅲ. 群小購買者와 政府의 참여

原油去來業者로서 메이저를 배제함에 따라 產油國들은 현재 수많은 群小購買者들과 去來를 하고 있다. 契約物量의 규모는 점차 작아지고 있으며, 市場이 強勢를 보이는 경우에는 購買者들의 協商權限이 축소된다. 購買者들이 群小業者로 分化됨에 따라 競争은 격화되고 石油市場은 不安과 초조감이 더해간다.

한편 物量이 많을 때는 原油市場은 아주 허약하게 弱勢로 전환된다. 따라서 79년과 80년

대규모 長期契約購買者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契約期間을 단축한 일부 産油國들은 이제 大雇客들과 장기적인 安定供給關係를 유지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産油國과 메이저간의 均衡이 깨어지기 시작하자 79년 이전에 이미 産油國과 消費國政府 또는 國營石油會社간의 直去來가 增加하였다. 이러한 變動過程은 産油國의 販賣權을 강화시키고 前에 第3者雇客이었던 消費國들을 産油國과 직접 去來하도록 만든 이란事態로 인하여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政府의 直去來擴大過程은 이란·이라크戰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開戰初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터키·포르투갈·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等 消費國들은 政府가 協商에 나서 産油國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安定供給問題를 떠나서 政府의 関與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問題化되고 있다.

일부 契約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상당히 非經濟的이다. 公式販賣價格으로 구입한다고 해도 이들 契約은 購買量減縮에 融通성이 적기 때문에 民間導入보다 조건이 불리하다. 그렇다고 購買者側이 요청하여 再協商을 하게되는 경우 두 나라사이의 政治的關係는 악화될 수도 있다.

프랑스의 두 國營會社가 사우디에서 契約物量의 감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政府는 한동안 이를 허용하지 않고 주저하였다. 이러한 例는 營利的인 決定이 政治的인 barrier에 의하

여 어떠한 구속을 받는지 잘 나타내 준다. 그러나 잠재적인 政治的 門題性에도 불구하고 스웨덴·벨기에·그리스같은 나라는 사우디와의 政府契約物量을 감축시키거나 단계적으로 축소시켜나갔다.

앞으로는 옳던 그르던 政府契約에 기대하는 安全性은 商業的 競争力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질 것이다. 全世界의 으로 볼 때 G-G베이스 原油導入量은 78~80년사이에 하루 300~400만배럴이나 急增하여 하루 總 680~780만배럴에 달했다. 그러나 81년이후 이 物量은 前에 증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78년이후 G-G去來가 하루 400만배럴정도로 약간 增加했다고 해도 메이저의 市場占有率이 스웨덴을 제외한 先進工業國에서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다. 이탈리아는 獨立係石油會社의 희생을 무릅쓰고 G-G베이스去來를 확대하였으며, 벨기에·덴마크等은 原油또는 製品을 기존업자에게 販賣함으로써 G-G原油를 증가시켰다.

世界原油市場이 弱勢를 보이게 되자 G-G 原油購買의 증가추세는 잠시 逆轉되고 원유구매가 다시 商業主義(營利主

義)로 복귀하고 있다. 그러나 石油市場이 다시 強勢로 전환되면 消費國들은 일단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처하겠지만, 産油國들은 다시 G-G去來擴大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下流部門의 반응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下流部門市場의 구조적 변화는 上流部門의 변화보다 심하지 않은 편이며, 그것도 일부 變化는 주로 79년 이전에 이루어졌다. 原油確保量의 감소와 世界石油市場의 여건변화에 대한 精油部門과 販賣部門의 反應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世界石油消費가 73년 하루 4,790만배럴에서 78년 5,090만배럴로 증가했지만, 항시 메이저들은 自社精油工場의 원유처리량을 하루 400만배럴이나 줄임으로써 그들의 比重은 51%에서 41%로 10%포인트나 낮아졌다. 이는 收益性이 없는 市場에서는 철수하는 한편 생산원가가 높은 精油工場의 활동을 중단하고 대신 製品을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全世界製品販賣量중 메이저의 比重은 51%에서 44%로 떨어졌다.

7 대메이저의 精製 및 販賣現況

〈表-3〉

(단위: 백만배럴/일, %)

	증 감					
	1973	1978	1980	1981	1981/73	1981/78
원 유 처 리 량	23.3	19.5	17.9	15.9	- 7.4	- 3.6
제 품 판 매 량	24.3	22.4	20.4	19.1	- 5.2	- 3.3
세 계 석 유 수 요	47.9	50.9	49.3	47.0	- 0.9	- 3.9
제 품 점 유 율	51	44	41	41	-10	- 3
정 제 점 유 율	51	41	38	36	-15	- 5

※ 공산권은 제외

이와 같이 下流部門에 있어서 메이저들의 役割縮小은 이란革命 이후 가속화되었다. 78-81년 사이에 메이저들의 原油處理量은 하루 360만 배럴(世界 原油處理量의 5%포인트)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世界石油需要 減少幅보다 약간 많은 量이다. 그러나 메이저들의 製品販賣占有率은 78년 44%에서 81년 41%로 3%포인트 밖에 줄지 않았다. 따라서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純製品購入量은 하루 350만 배럴로 증가하였다.

메이저들이 언제까지 일부 自社精製施設의 가동을 중단하고 製品購入을 계속할 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市場物量이 過剩狀態일 때는 製品購入價格이 自社工場에서 정제하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 그러나 自社精製品를 팔아서 여러 가지 費用을 카버할 수 있을 경우 製品를 계속 구매하게 되면 精油工場의 固定費回收가 어렵게 될 것이다.

79년 이전 메이저들의 下流部門活動이 縮少된 것은 크게 두 가지 要因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特惠原油의 확보량이 줄어 上流部門의 利益으로 下流部門에 해주던 支援이 감소했으며, 둘째 73~74년 사이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下流部門의 収益性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79년에도 메이저들의 下流部門活動은 더욱 위축되었으며, 이는 低収益性 때문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메이저들은 全

世界的인 石油需要減退에 따라 製品販賣를 축소시켰다. 특수한 경우로는 特惠 또는 長期契約原油를 상실함으로써 限界原油의 購入費가 急騰하자 마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製品販賣를 포기하기도 했다.

메이저들의 市場占有率은 80년 이후 全世界販賣量의 약 40% 수준으로 安定되었다. 81년 全般的인 純益減少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들은 다른 群小石油会社들만큼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더우기 일부 메이저는 81년 上半期에 사우디에서 비교적 싼 原油를 確保할 수 있었다.

<表-2>에서 보듯이, 81년 메이저들의 原油確保量은 自社精油工場에서 처리한 量보다 하루 약 230만 배럴이 많다. 이 剩餘分은 주로 아랍코係 메이저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유럽係 메이저들의 剩餘分은 얼마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戰略的인 石油需給均衡 즉 原油確保量과 製品販賣量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메이저들은 하루 90만 배럴의 原油가 不足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原油의 製品販賣量에 대한 需給均衡은 73년에는 하루 570만 배럴의 原油超過로 나타났으나, 그 후 78년까지 계속 감소하였으며, 79년에는 급격히 줄어 결국 80년 原油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그러나 石油市場이 79년과 80년에 群小購買者에게도 공개되어 價格에 위험성이 따르게 된 반면 市場의 物量이 넘칠 때 저렴한 現物價格으로 購買할 수 있는 機會 등과 같은 購買의 신축성은 환영

할 만한 要因이다.

79~80년처럼 石油市場이 強勢을 보일 때는 原油確保問題가 가장 중요했지만, 요즈음과 같은 弱勢市場下에서의 지배적인 企業政策은 供給價格을 市場狀況에 연동시키는 일이다. 79년에는 純益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나, 81년과 82년 상반기에는 일부 메이저들의 경우 특히 유럽에서 赤字를 시현했다.

地域적으로 한정된 下流部門의 赤字를 메꾸어 주던 上流部門마저 OECD國 이외에서 赤字를 보게 되자 메이저들은 収益性和 관련하여 赤字를 보고 있는 下流部門市場과 上流部門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있다. 經營理論에 입각하여 메이저들은 販賣 및 精油部門의 규모를 축소할 지도 모르며, 특히 製品價格이 政府에 의해서 非現實的으로 낮게 策定되어 収益性이 낮을 경우, 그러한 市場에서는 철수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다 選別的인 조치는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企業政策의 새로운 추세가 消費國市場에서 메이저들의 전반적인 사업축소로까지 擴大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수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精油 및 販賣分野에서 손을 뗀 걸프의 경우는 同社가 이들 係別會社에게 安定性 있는 原油供給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例外라고 볼 수 있다. 석유회사는 經濟性에 따라 海外事業活動을 축소하고 있는 반면 産油國은 原油販賣가 어려운 時期에 販路를 확보하기 위하여 該

當事業의 인수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이미 소규모 精油工場 하나를 買入했으며, 현재 유럽에 있는 또 다른 精油工場의 인수를 위해 걸프와 協商中에 있다.

지난 10여년동안에 일어났던 이러한 石油会社들의 變動

事項은 별도로 하고 현재 自由世界의 精油業界는 변동이 심한 製品需要推勢에 적응해 가고 있다. 또한 많은 改質施設이 建設中에 있으므로 메이저들은 輕質油製品의 생산을 늘리고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重質油生産을 줄일수 있게 될 것

이다. 이러한 投資덕분에 메이저들은 原油購買時에 보다 많은 신축성을 갖게 될 것이며, 나아가 잃어버렸던 上流部問의 신축성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Petroleum Economist, July 1982〉

産油国 動向

사우디油價 내릴지도 올가을 이전에 배럴당 2~4弗 정도

세계최대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채택된 원유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믿고 있는 금년 4/4분기 이전에 원유가격을 배럴당 2~4달러정도 인하할지도 모른다고 주간석유정보(PIW)誌가 16일 보도했다.

PIW는 OPEC가 세계의 경제적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원유시장에서 앞으로 계속 엄청난 손실을 입게될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지도층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공급과잉과 수요 감퇴로 인해 산유량을 10년만에 최저수준인 하루 5백50배럴선까지 대폭 감축했는데 이같은 산유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총 석유생산 능력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리비아産油량 140만배럴로 増加

7月初 OPEC臨時国会에 100만b/d水準으로提示되었던 리비아의 産油량은 계속 増加, 現在는 140만b/d水準에 달하고 있으며 리비아 石油産業

의 특성이었던 위탁정제去來도 급격히 減少하였다고 리비아에서 操業中인 石油会社 消息通들이 말했다.

이들은 또 이와같은 리비아의 産油量 増加現象은 OPEC 臨時總會以後 아직도 油價問題에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우디에게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 3/4分期末 原油價오르고 需要도 4,300만b/d로 増加 예상

인도네시아의 Subroto에 너지相은 27日 今年度 3/4分期末엔 原油價格이 上昇되며 世界石油 需要도 현재 世界産油량이 4,070만b/d인데 반해 3/4分期에는 約 4,300만b/d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OPEC은 지난 3월에 設定한 1,700만 b/d의 生産上限線을 재검토하기 위해 8月中 비인에서 다시 會議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130만b/d인 自國쿼터량을 遵守하기 위해 從前보다 30만배럴/日 정도를 減産하고 있는데 5月産油량은 126만b/d였으나 6月에는 130만b/d를 다소 上廻한 것으로 알려졌다.